

날개 단 삼바... 상반기 수주 작년 매출 2배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급계약 4건, 1.5조 달해 하반기에도 장밋빛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반기 신규 수주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매출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존 수주건도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생산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 삼성바이오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일 삼성바이오는 스위스 소재 제약사와 2건의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신규 계약은 432억 원 규모로, 이번 계약을 통해 수주한 바이오의약품은 3공장을 통해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리액터를

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계약상 보장된 특정 조건 충족 시 확정 계약금액은 4873억원 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전 맺은 계약도 증액이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는 스위스 소재 제

약사와 2462억원 규모의 추가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바이오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4건의 공급계약을 잇달아 맺으며, 올해 수주 금액은 1조원을 훌쩍 넘겼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달 GSK와 2831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841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계약 조건에 따라 향후 계약금액은 2725억원 까지 증가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비어(Vir) 바이오테크놀로지와의 4418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중화항체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 매출액의 60%를 넘는 사상 최대 계약규모다. 삼성바이오는 올해 기술이전을 시작

으로 내년 3공장에서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기존에 맺은 계약이,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5배 이상 늘어난 사례도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4월, 2018년 이뮤노메딕스와 맺은 345억 원 규모 공급계약이 1845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뮤노메딕스의 계약제품 개발 성공에 따라 계약 확정 금액이 늘어난 사례다.

삼성바이오가 올해 신규 수주한 금액과 계약금액 증액 사례를 모두 합하면 올해 수주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한해 매출(7015억 원)을 2배 가량 뛰어넘는 규모다.

삼성바이오관계자는 "상반기신규 수주 규모는 1조5000억원 가량 된다"며 "수주로 인한 매출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꾸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아제약 '터비뉴더블액션 겔' 흡수·건조 빠른 무좀치료제

동아제약은 여름철을 앞두고 복합 성분 무좀치료제 '터비뉴더블액션겔(사진)'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터비뉴더블액션겔에는 무좀 원인균을 없애주는 테르비나핀염산염, 가려움을 완화해주는 리도카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 항염증 작용의 에녹솔론,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5가지 성분이 함유돼 무좀, 완선(사타구니 백선), 백선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동아제약 특허기술을 적용, 사용 시 필름막을 형성해 약물의 피부침투력을 개선했다. 또 겔 타입으로 흡수와 건조가 빨라



입으로 흡수와 건조가 빨라 약을 바른 후 끈적한 발로 걸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fmgf '잉크 쉬어 매트 립스틱' 출시

LG생활건강이 공기 같이 가볍고 투명한 질감의 컬러가 입술에 물들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발리는 fmgf의 '잉크 쉬어 매트 립스틱(사진)'을 8일 출시했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fmgf가 선보인 이번 립스틱은 마치 입술에 공기처럼 닿는 듯 가볍고 얇게 발리고 은은하게 발색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입술에 밀착되는 매트 타입이지만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총 10가지 컬러로 레드, 코랄, 로즈, 핑크, MLBB 컬러 등 다양한 립 컬러 스펙트럼으로 출시됐다.

/조효정 기자



유니클로, 띠어리와 컬렉션

유니클로가 오는 26일 패션 브랜드 '띠어리'와의 협업 제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에 속한 '띠어리'는 뉴욕 기반의 컨템포러리 패션을 선보인다.

'유니클로 x 띠어리 캡슐 컬렉션(사진)'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유니클로 '라이프 웨어' 철학을 반영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여름을 완성하는 스타일을 구현했다. 유니클로의 뛰어난 기능성 소재와 띠어리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성이 만난 4개의 남성용 아이템들로 구성됐다.

/조효정 기자

트렉스타 아쿠아 쿨링 슈즈 '이퀴노스5'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더 강력한 쿨링감과 통기성을 선사하는 아쿠아 쿨링 슈즈 신제품 '이퀴노스 5(사진)'를 8일 출시했다. '이퀴노스' 시리즈는 어떤 환경에서도 신선한 공기와 온도를 유지하는 힝개미 집 구조를 모티브로 개발됐다. '이퀴노스 5'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서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빠져나가는 듀얼 쿨링 원리를 이용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 통풍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효정 기자

"3차원 분석기술로 뇌 구조 정확히 본다" 일동제약, '바이오USA'서 신약 R&D 홍보

카이스트 백세범 교수 연구팀

KAIST는 바이오및뇌공학과 백세범 교수(사진) 연구팀이 뇌신경과학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실험용 쥐의 뇌 절편 영상을 자동으로 보정하고 규격화해 신경세포의 3차원 분포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는 핵심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실험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분석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여러 개체에서 얻은 뇌 이미지를 표준적인 3차원 지도상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개체별 분석에서는 관측하기 힘든 뇌세포 간 상호 연결 형태의 정확한 공간적 분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생명과학과 이승희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실험에서 얻어진 쥐의 뇌 절편 데이터를 분석



시각피질 (Visual cortex) 사이의 정확한 연결 구조 분포를 측정할 수 있었다. 기존 분석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다중 개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뇌 전역에 걸친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뇌인지공학프로그램 최우철 박사과정과 송준호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셀(cell)의 온라인 자매지 '셀 리포트(Cell Reports)' 5월 26일자에 게재됐다.

/한홍수 기자 hys@

했는데,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시각시스템의 초기 구조인 외측 슬상핵(Lateral geniculate nucleus)과

고형암, 당뇨병 치료제 등 신약 파이프라인 중점 소개

일동제약은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USA)에 참가해 자사의 신약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BIO USA는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콘퍼런스 행사로, 관련 기업체 및 종사자, 전문가 등이 사업적, 학술적 교류를 꾀하는 자리다.

일동제약은 영상 발표를 통해 암(종양), 내분비대사계, 안과, 신경정신계 등의 분야와 관련한 자체 신약 후보물질을 공개하고 오픈이노베이션, 라이선스 아웃 등 사업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ID13009, ID11902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ID11014, ID11052 ▲NASH(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등 간

질한 치료제 후보물질 ID11903, ID11905 ▲노인성 황반변성, 안구건조 증 등 안과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ID13010, ID11901, ID11041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ID11904 등 자체 보유한 신약 R&D 파이프라인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동제약은 확률(가능성), 속도, 생산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파트너를 확보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그룹 내 계열사인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형 신약 개발 회사 아이디언스, 임상약리 컨설팅 회사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등과도 연계해 전문성을 높이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남산 바라보며 바비큐 파티 즐기세요" 한림대학교의료원, 마취 적정성평가 1등급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도심 속 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호텔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객실,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 풀사이드 바비큐 패키지'를 오는 20일부터 선보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시되는 이번 패키지는 호텔을 벗어나지 않고 여름 휴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에서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와 수영을, 남산과 도심의 전경이 펼쳐지는 객실에서는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다. 이 패키지는 ▲객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풀사이드 바비큐 패키지'.

실 1박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2인 입장 ▲오아시스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 2인 ▲그라넬 다이닝 라운지에서 조식 2인 ▲피트니스 및 실내수영장 2인 입장 혜택을 포함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산하병원 4곳 종합점수 98.6점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4개 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성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최근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았다.

이번 마취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행한 첫 평가이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마취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안전관리 활동, 마취 중·후 환자 상태 등 총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총 344개의 의료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균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점수는 82.2점으로 나타났다.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은 종합점수 평균 98.6점을 받았다. 특히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 유지 환자 비율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